

광주 지하철 1호선 완전 개통 후

하루 이용객 1만4천명 늘었다

KTX 등 송정리역 열차 이용객도 20%↑

광주 지하철 1호선이 지난 11일 완전 개통된 후 지하철 이용 승객은 40%, 송정리역 열차 이용객도 20% 가량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주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 난데다 지하철 송정리역과 국철 송정리역 대합실이 바로 연결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1호선 2구간이 완전 개통된 뒤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은 하루 평균 4만9천여명을 기록, 개통 전 3만5천여명에 비해 4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 중 평일 이용자는 23.3%, 휴일인 토요일 이용자는 61.8%까지 늘어났다.

특히 새로 개통된 2구간의 송정공원역과 송정리역은 평일 이용객이 2천~3천여명으로 1구간 도심 구역의 금남로5가역, 양동시장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2구간의 새 역사 6곳의 전체 이용객이 집중됐으며, KTX는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승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영업수익도 증가했다.

코레일 측은 “지하철 개통 후 2억8천

가량 증가했다. 코레일 광주지사에 따르면 ‘송정리역 연계교통 개통 전·후 9일간 이용실적’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객은 1만8천789명으로, 개통 전에 비해 3천164명(20.2%)이 늘었다.

열차종류별로는 무궁화호 열차가 1천568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KTX와 새마을 이용객은 각각 1천 411명과 185명 증가했다.

무궁화호 열차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집중됐으며, KTX는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승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영업수익도 증가했다.

518원의 수입을 올려, 개통 전에 비해 4천215만원(17.3%) 가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하철 승객들의 대중 교통 이용 편의를 더욱 즐진시킬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 개편 때 지하철과의 환승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지하철 1호선은 지난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 평동역에 이르는 2구간(8.14km)이 새로 개통돼 20개 역 20.1km에 이르는 전 구간을 운행중이며, 진동차에서 내린 후 30분 이내에 시내버스(마을버스)와 환승이 가능하다.

/정후기자 who@kwangju.co.kr



전남도 초청으로 지난 26일 도청을 찾은 100여명의 신안지역 어린이들이 박종영 전남도지사의 안내로 청사 견학을 마친 뒤 산책로를 걷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역단체장, 도시계획 직접 결정

빠르면 10월부터… 정부, 녹지 변경 등 결정권 이양

빠르면 10월부터 녹지지역을 주거 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로 전부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변경 등을 여전히 국토부장관이 권한을 가진다.

개정안은 이 밖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던 4가지 필수사항을 사업목적과 사업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 진흥지구에서 공장·물류용토지설을 짓기 위해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2가지만 수립하고 가구 및 휴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연합뉴스〉

“구례·나주 닭·오리 농장도 AI 음성”

일반 질병으로 판명… 광주·전남 소강 상태

전남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으로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 잇따라 일반 질병으로 확인되고 지난 24일 이후 추가 의심신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AI가 수그러들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례군 문체면의 김모씨 닭 농장과 나주시 공산면 김모씨의 오리농장 등 2곳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일반 질병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정밀검사를 의뢰한 총 25건 가운데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2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모두 16건이 일반 질병 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7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밀검사를 벌

이고 있는 대상들이 잇따라 일반 질병 등으로 나타나 전남지역에서는 AI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므로 농민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희증기자 chae@kwangju.co.kr〉

AI 감염 의심 사병 완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으로 특수병실에서 격리치료 중이던 병사가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AI 의심환자

의 임상적 증상은 완전히 해소된 상

황으로 환자의 격리상태를 음압격리

에서 비음압격리로 변경조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는 격리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지만 앞으로 바이러스 배출기간을 고려해 격리상태도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년 광주광역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은퇴 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PBL) 및 전문인력 양성(SLCA) 프로그램 모집요강

1. 사업 내용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하고 지역적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은퇴 전·후의 종·고령자가 스스로 생애경력목표에 맞게 인생을 재설계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펼쳐버리고 최적의 생애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령자 생애설계서비스 제공 전문인력(SLCA) 양성 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개발한 생애설계 전문프로그램(Program for Beautiful Life)으로, 은퇴 전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자립적이고 수동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르신에 대해 생애역할, 관계,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 생애에 걸친 자기개발, 촉진 및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일문과정과 전문과정으로 진행됩니다.

2. 무엇을 배우는가?

고령자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 프로그램(PBL)

○ 본 프로그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개발한 노인생애경력조언자(Senior Life Career Advisor) 양성 프로그램으로, 은퇴 전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자립적이고 수동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르신에 대해 생애역할, 관계,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 생애에 걸친 자기개발, 촉진 및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일문과정과 전문과정으로 진행됩니다.

3. 어떤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고령자 은퇴 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프로그램(PBL)

주도적이고 자립적 생애설계를 요구하는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고령자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SLCA) 양성 프로그램

만 20세 이상 교육 회망자, 07년 과정이수자 전문과정 참여자

· 고령자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공무원 및 실무자)

· 금융권 및 고령친화산업 등 민간기업의 고령자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 고령자 대상 상담이 번화한 업종 종사자 등

* 공동시행 :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광주광역시민자

4. 모집 요강

프로그램 운영

모집기간 : 2008.4.22~2008.5.21

운영기간	개설반	시간	인원	운영기간
		오전	오후	운영기간
6월~9월 (4개월)	PBL-1	09:00~13:00	40명	총80만원
	SLCA전문 1	14:00~18:00	40명	총16만원
	SLCA입문 1	18:30~22:30	40명	총16만원
	SLCA전문 2	주말	40명	총80만원

5. 교육 수료자의 특전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 고령사회 대비 전문인력개발원으로 다양한 활동 지원
- 기업내 고령자 대상 인사 및 상담분야 전문상담기자로 활동 지원
- 지역내 노인문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활동 지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생애설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전문강사로 활동 지원

6. 문의 사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광주시청 4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회관 지역사업부

연락처 : 062-613-5767~8 Fax 062-613-5773

KTX 등 송정리역 열차 이용객도 20%↑

광주 지하철 1호선이 지난 11일 완전 개통된 후 지하철 이용 승객은 40%, 송정리역 열차 이용객도 20% 가량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주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 난데다 지하철 송정리역과 국철 송정리역 대합실이 바로 연결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1호선 2구간이 완전 개통된 뒤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은 하루 평균 4만9천여명을 기록, 개통 전 3만5천여명에 비해 4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 중 평일 이용자는 23.3%, 휴일인 토요일 이용자는 61.8%까지 늘어났다.

특히 새로 개통된 2구간의 송정공원역과 송정리역은 평일 이용객이 2천~3천여명으로 1구간 도심 구역의 금남로5가역, 양동시장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2구간의 새 역사 6곳의 전체 이용객이 집중됐으며, KTX는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승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영업수익도 증가했다.

코레일 측은 “지하철 개통 후 2억8천

가량 증가했다. 코레일 광주지사에 따르면 ‘송정리역 연계교통 개통 전·후 9일간 이용실적’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객은 1만8천789명으로, 개통 전에 비해 3천164명(20.2%)이 늘었다.

광주 지하철 1호선은 지난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 평동역에 이르는 2구간(8.14km)이 새로 개통돼 20개 역 20.1km에 이르는 전 구간을 운행중이며, 진동차에서 내린 후 30분 이내에 시내버스(마을버스)와 환승이 가능하다.

광주 지하철 1호선은 지난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 평동역에 이르는 2구간(8.14km)이 새로 개통돼 20개 역 20.1km에 이르는 전 구간을 운행중이며, 진동차에서 내린 후 30분 이내에 시내버스(마을버스)와 환승이 가능하다.

광주 지하철 1호선은 지난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 평동역에 이르는 2구간(8.14km)이 새로 개통돼 20개 역 20.1km에 이르는 전 구간을 운행중이며, 진동차에서 내린 후 30분 이내에 시내버스(마을버스)와 환승이 가능하다.

광주 지하철 1호선은 지난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 평동역에 이르는 2구간(8.14km)이 새로 개통돼 20개 역 20.1km에 이르는 전 구간을 운행중이며, 진동차에서 내린 후 30분 이내에 시내버스(마을버스)와 환승이 가능하다.

광주 지하철 1호선은 지난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 평동역에 이르는 2구간(8.14km)이 새로 개통돼 20개 역 20.1km에 이르는 전 구간을 운행중이며, 진동차에서 내린 후 30분 이내에 시내버스(마을버스)와 환승이 가능